

정부,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기재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확정...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전환·기관 혁신 '알장'

정부가 직무급을 도입하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거나 차등 폭을 키운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연공에 따른 호봉제 급여체계 대신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해 공공기관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에 100개로 늘리는 등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 도입을 확대한다. 총

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차등 폭을 확대해 기존 연공성이 강한 보수체계를 개선한다.

이번에 확정한 보수관리 강화 방안 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직무급 배점에 가점(+1점)을 부여,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에 노력한 성과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해 가점(+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대상은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

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에 동참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 것도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실적 점검부터는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하도록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도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이 개별 기관의 특성을 확대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원만하게 뿌리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생산성과 보수수준을 충분히 연계해 기관 내에 직무급이 상당히 자리 잡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급피크제 적용 대상과 신규채용 규모 등을 기재부와 협의할 때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중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3월말 완료로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과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중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 취득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뉴시스



전현희 권익위원장,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이 보호되고 참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A공무원 업무추진비 일부 부적정 사용... '훈계' 조치

도 감사관실, 해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867만원 관련 조사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A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A공무원이 지난해 7월 29일 임용돼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867만원)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언론에 제기된 비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실과 다르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업무추진비 집합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

관리대상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A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사항과 관련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대상을 기재하는 등 34건(288만7,000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점이 확인되었다.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과 관련,

A공무원은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및 도청 업무 과다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13건(88만7,000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특산품 지급관리대상 미비와 관련, A공무원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자 및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279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

다만,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의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주의사항 등을 고위공직자(4급이상) 반부패·청렴교육 및 사례집 발간 시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해 새만금호 목표수질 '모두 만족'

제3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 '효과'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 송호석 청장은 지난해 새만금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 13개 측정지점에서 모두 목표 '수질 만족'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반경·동진' 유역 각각의 농업·도시용지 4개 대표지점의 수질은 2021년 대비 7.1~26.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내부개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지만, 꾸준히 추진해 온 수질개선대책과 2020년 12월부터 일 2회로 확대된 배수갑문 운영(당초 일 1회)에 따라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호 내부개발,

해수유동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 분석을 위해 새만금호 13개 주요 측정 지점에서 월 4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호 수질을 '제3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2021~2030년)에 따라 도시용지는 III등급, 농업용지는 IV등급을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수질모니터링 결과는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www.earil.gakr)'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3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의 44개 대책·1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도내 농·축산인 대상,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55% 보조

전북도가 고유가와 고회환을 상환이 지속되면서 가중되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할 적인 시설원예농가 로 면세유 관리능함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류 3개월분이며,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1)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이달 28일까지 농업인별 면세유구매전용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전북 자체적으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내에 주소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9~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며, 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억원으로, 20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지난해 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에 대한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과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67원, 중유 109원, LPG(난방)171원, LPG(차량)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다만 유가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시설원예농가 한시적 유가보조금 규제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우량 수정란 600개, 한우농가에 무상 공급

전북도 축산연구소는 올해 도내 한우농가에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 수정란 600개를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한우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해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은 우량암소의 난자와 보충수소소(KPN) 정액을 이용해 생산된 고능력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우량 송이질을 생산함으로써 한우개량을 촉진한다.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송이질은 암소, 수소 모두의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소 한쪽만을 개량한 인공수정보다 개량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는 살아있는 우량암소의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단기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체난자 흡입기술(OPU, ovum pick-up)을 활용해 우량 수정란을 확대 공급 계획이다.

축산연구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우 고능력 수정란 4,633개를 도내 630호 농가에 공급했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 전북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 토론에 면접 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등변협회 권역회장
- 전북언어교육원 및 기원, 단국 특성교수
- KBS TV아침매일, MBC TV, JT, TBS 권역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니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영어유니버시티'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평생교육사, 시낭송시도자 등 자격증 소지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관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아)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